

이슬 감로를 먹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슬 감로를 먹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과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됩니다

빛의 존재로 온 우주를 다스렸던 태초의 하나님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주체 영의 자리를 박탈당한 순간 인간으로 전락한 것

지금부터 6000년 전에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빛의 존재로서 온 우주를 다스렸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아담과 해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해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 속에 가둬놓고, 즉 마귀가 주체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가둬놓고 마귀가 주체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간의 진면목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6000년 만에 나타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고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주체 영이 마귀 영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인간들을 점령하여 다스리다가 이제는 구세주가 와서 마귀의 실체를 바로 논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했다고 말하니까 마귀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해도 마귀는 능력이 없고 이긴자 구세주를 꺾을 만한 힘이 없는 고로 속수 무책이죠?

오늘날 마귀가 주체 영이 되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

습니다. 오늘날 구세주가 전지전능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죠?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운이 강해졌고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고로 마귀가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인 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이 안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일과 믿음은 구세주의 영과 마음입니다

창세기서 3장 22절에는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된 다음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과일 나무를 화염검을 둘러서 지키게 했습니다. 못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마귀가 사실은 조작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생명과일도 없었습니다. 승리자의 영이, 구세주의 영이, 구세주의 마음이, 생명과일인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생명과일을 화염검을 둘러서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까 봐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애길 해야 하나님을 인간의 원수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수작이요, 마귀의 계략 속에서 그런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말을 일삼



구세주 조희성님

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은 다 마귀의 소리고 짝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어 있죠? 그러고도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그대도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과일 나무를 화염검을 둘러서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한 고로 하나님의 신이 말한 것이죠? 하나

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가고 구원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되어야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해야 이치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가 인간들이 믿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구세주가 된 구세주의 영이 믿음이라고 해야 이치가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세주의 마음이 믿음이고, 구세주가 말세에 나타나서 자신으로 움직여 믿음이 되는 구세주의 영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뜻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바로 죄인 속에 있는 죄가 되는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죽일 수가 있고, 마귀를 소멸한 다음에 마귀가 있던 자리에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함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다가 되고 생명과일을 먹었다고 되고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승리제단 말고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할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여 하나님

되어야 구원입니다

옛날 바울이 '오호라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괴로운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쓴 뿌리가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쓴 뿌리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고로 누가 이 쓴 뿌리를 뽑아 줄 자가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은 결국 바울은 그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저서 당시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여 84살까지 살다가 죽어서 예수의 시체가 지금 프랑스 땅에 묻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예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의 말이 써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51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무궁토록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제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거의 거의 다 점령될 무렵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지리 멸렬시키니 참으로 통쾌하죠?*

2003년 5월 2일 말씀 중에서



포로 아닌 포로를 석방하라

사회 각종 다방면으로 포로 아닌 포로의 석방운동을 호소

62수용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부 사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빨갱이들을 하루 속히 색출하려는 의욕만 앞세우다가 미군 장군이 붙잡히는 바람에 오히려 인민군 포로들에게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여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다. 어쩔 수 없이 62수용소는 제외하고 좀더 신중하게 내부를 파악한 뒤 63수용소, 65수용소, 66수용소를 차례로 뒤집어엎는 데는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반공포로들의 빨갱이 세력들을 전복하고자 하는 불붙는 전의가 한몫하였음에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거의 수용소 정화 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억울한 반공포로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포로 가운데는 억울하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거국적으로 알리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 다른 한편으로 포로수용소 내에서 많은 빨갱이들을 붙잡고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를 정확히 짚어 상당수를 납한 쪽으로 택하게 하였다. 하루도 쉬지 않고 '포로 아닌 포로를 석방하라' '반공 포로 석방하라' 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혈서를 써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유엔 등에 제출하였다. 한 번으로 안 되었기에 수 차례



포로 아닌 포로들을 석방하려고 사회에 호소하는 모습의 그림

에 걸쳐 투서하고 윗기하였다. 마침내 그 건의가 전 언론 매체에 시끌벅적하게 여론이 들끓으면서 유엔 산하 기관에 관철되어 정부에서 반공포로를 심사해서 석방기로 결정하였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투쟁이 기폭제가 되어 많은 포로들을 자극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뜻이 성사되었다.

그러하여 중립국 감시단의 심사로 이북으로 갈 사람은 이북으로, 남한으로 갈 사람은 남한으로 갈라놓은 다음 이북 쪽은 포로수용소로 보내고 남한으로 지원한 포로는 석방시키기에 이르

렀다. 반공포로 환영식이 거행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연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 당시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도 크게 뉴스로 방영되었다.

국내의 귀빈이 만장한 식장에서 대규모 행사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이 사람이 답사를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연설문을 손수 작성하여 그 동안 생생히 체험했던 공산주의의 악랄

포로가 아닌 20살 젊은 대학생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맨발로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당한 고초와 설움, 총살 집행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가며 받은 약소민족의 설움, 수용소 내에서 수많은 폭동과 아비규환 속에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당해야만 했던 내용을 반공포로 12만 명의 대표로 이 사람이 답사했다. 장내는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는 한 포로의 설움이면서, 또한 한국 민족 전체의 비극을 대변한 것으로써 이 연설문을 근간으로 해서 '철조망을 넘어서'라는 전쟁영화가 제작되었다.

합과 포악함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다. 나이가 지긋한 일반인도 군인도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포의 포로수용소 생활에서 당한 기막힌 사정을 말하게 되니 만장한 청중도, 이승만 대통령도, 프랑체스카 여사도, 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요인도 모두 다 울어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다. 포로가 아닌 20살 젊은 대학생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맨발에 절며절며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당한 고초와 설움, 총살 집행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가며 받은 약소민족의 설움, 수용소 내에서 수많은 폭동과 아비규환 속에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당해야만 했던 기막힌 내용을 대강만 열거하여 말했는데도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던 것이다. 이는 한 포로의 설움이면서, 또한 한국 민족 전체의 비극을 대변한 것으로써 지금도 그 연설문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이 연설문을 근간으로 해서 '철조망을 넘어서'라는 전쟁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전쟁의 비극과 공산주의의 악랄함을 알리는 반공 홍보 영화로 당시 널리 상영되었던 것이다.

전쟁 후, 30년 만에 김포 고향 앞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도 고향으로 살아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잠시도 잃지 않았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 마

침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포로를 실은 차에 몸을 내맡긴 채 벌써 마음은 김포 고향을 향해 재촉했다. 김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포에서 대표자의 축사가 있는 다음 수 십 명의 포로들을 대표해서 또 이 사람이 눈물어린 답사를 하여 수많은 청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달구었다. 환영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30여 년의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였으니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될 대로 되었고, 눈빛마저 보통 사람의 그것이지 아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시는 것을 동료 포로들이 "여기 회색이 있어요" 하니, 그때서 제자식인 줄 알아보고서 반갑게 손을 덥석 잡으시는 것이었다. 수백 만이 죽는 살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반드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확신을 잡기도 놓지 않았다.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내맡기며 삶을 포기하지 않자 결국, 살아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처절한 상황 하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게 되리라는 신념이 굳건하게 자리잡은 산 교훈이 되었던 6.25 전쟁이 되었던 것이다.*